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 2022년 11월 29일(목) 14:00~18:00
 - (2차 인터뷰) 2022년 12월 15일(목) 10: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류주연, 방지영, 신유청, 양근애, 윤미현, 장은수, 조훈성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지원 사업은 단계별 과정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장르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예술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검토 심의하여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단계별 창작지원을 통해 ‘예술적 수월성’, ‘동시대성’, ‘독창성’ 과 ‘다양성’ 을 갖춘 우수한 작품(올해의 신작) 제작을 돕고, 향후 관객에게 완성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연극분야에 지원 신청한 사업은 예년보다 많은 총 87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청서 미제출 등 행정결격 사업 5건을 제외하면 총 82건이 심의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의는 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 일체를 사전에 전수검토 하였으며,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3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의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전체 신청 사업을 꼼꼼하면서 밀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1차 서류심의를 거쳐, 82건 가운데 15개 신청사업을 2차 PT 및 인터뷰심의 후보사업으로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공정성을 위해 각 사업 당 총 20분간 진행되었으며, 15개 신청 사업에 대한 인터뷰 종료 후 심의위원회 종합토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건의 사업이 2023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의신작> 후보로 선정된 10건의 사업은 내년 3월 실연심의(쇼케이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의신작>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앤데믹 전환기를 맞는 우리 공연예술계가 그 경직되고 위축된 일상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고 본연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단정 짓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의 활성화야말로 이러한 고착화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활로 모색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원사업 신청 사례 하나하나가 동시대인으로서 마주하는 재난 사회와 소외 현실을 진정성 있게 다루면서 심도 있게 접근하였고, 그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탐

구와 성찰, 소재적으로는 인적, 물적 문화예술자원을 소중히 여긴 작품 창작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의 각 단체, 개인의 창작과정에서의 각고의 노력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의위원들의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그 속고에 대한 각자의 의견도 폭넓게 개진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신청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명징한 메시지 전달과 소재의 다양성, 이를 뒷받침하는 예술적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1차 심의 이전에 82건의 신청서류에 대한 꼼꼼한 전수검토 후 심의위원들은 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장, 단점 등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밝히면서 평가항목 비중에 따라 차별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작품 선정의 기준에서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 과 함께 각 단체의 ‘실행역량의 우수성’ 에 대해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놓고 세심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참여인력 구성원에 대한 안정성, 그동안 조명받지 못한 작품이나 활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 측면도 고루 살폈습니다. 기존 업적 중심의 명성에 치우쳐 평가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부분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피고 균형감 있는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서류심의에서의 다소 간의 평가 간극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점들은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심의에서 직접 창·제작진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미진한 점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신작 창작 과정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신청건수에 비례해 실연심의 선정 편수에 대한 확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때 15건으로 확대 논의한 후,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실연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실연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23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에 신청한 사업을 살펴보면 작품의 다양한 창작의도와 그 주제 의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난사회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다룬 작품부터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보여준 작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소외나 사회공동체의 세대 갈등과 혐오를 다룬 작품, 현대인의 정신병리를 소재로 차별 시선을 소재로 한 작품 등 그 어느 때보다 주제 의식이 다채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소재(사료나 기사, 구술 아카이브를 통한 원천자료 등)에 대한 비중도 꽤 높았다는 것 역시 특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 전달 외의 작품 형상화 목적, 그것이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참신한 시선을 제공하면서도 드라마성에 대한 질문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과정 등 작품의 동시대성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지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원 접수한 어떤 작품이든 동시대적 의미를 다루지 않은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더 동시대적 의미를 가졌다고 심의위원회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나 개인의 창작 취지와 더불어 관객과의 소통, 교감 능력에 대한 차별화, 그 역량의 부각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작을 통한 메시지의 교감, 설득력과 함께 그것이 작품화되면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살폈으며, 연출 계획, 무대구성 등과 같은 작품 콘셉트가 어떻게 작품과 부합될 수 있는지, 이러한 연출 무대계획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구성이 편성되었는지, 추후 우수한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역량에 대한 평가 등도 수렴하면서 작품의 미래적인 가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웠던 점을 이 지면을 통해 말씀드리면,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발굴될 수 있는 이 지원 사업에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 단체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단체와 창작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덧붙여 체계적인 단계별 과정 지원 사업으로서, 실연 및 본공연 예산편성 등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항목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무대 제작이나 임차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예산 설정이 필요하며, 공연예술 전문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인건비 산출의 어려움이 있으나 인건비 사례 등의 예산을 합당하고 공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청사업의 취지처럼 작품이 관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관객 개발의 측면이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의도에 맞게 관객과의 교감, 설득 방법에 대한 고려 지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참여한 단체 및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한 쉽 없는 열정과 이를 무대화하려는 노력에 새삼 존경의 마음을 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과 불안의 시대,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바로 이 연극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사업 실연심의에 선정된 10개의 단체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선정된 작품들이 완성된 공연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 2022년 11월 24일(목) 15:00~18:00
 - (2차 인터뷰) 2022년 12월 12일(월) 10: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유철, 박해림, 성종완, 오민영, 유인수, 이지혜, 최경화

2023년 올해의신작 뮤지컬분야 지원 사업에는 총 39건의 지원 접수가 되었고, 행정결격 대상 사업 없이 총 39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전원은 심의 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 사전 전수검토를 진행하였고, 오랜 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차 심의에서는 15건이 2차 PT/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차 심의를 통해 15건의 사업 중 10건을 3차 실연심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 역량의 우수성(3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를 고려하였습니다.

올해 뮤지컬 분야에 지원 신청한 작품들은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형식적 접근으로 향후 작품의 공연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흥미롭게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외되고 어두운 삶의 이면을 독특한 형식적 접근과 스토리 구성으로 엮어낸 작품, 하나의 사건을 각기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카바레 1인극, 경제 관념을 알려주는 가족뮤지컬, 궁중 무희, 건축가, 의사, 예술가의 삶에 관한 이야기 등 호기심이 가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작품이 연상되거나 비슷한 형식의 작품들과 뮤지컬 음악으로서의 송 모멘트나 음악의 극적 구성의 완성도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작품들의 다양성과 독특함, 계획을 통한 실행 가능성에 가장 주목하였고, 실연심의 과정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도 마지막까지 논의하였지만, 예산 여건상 모든 작품을 선정할 수 없어 결국 각 작품의 장단점 중 발전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어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실연심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히 리딩 공연을 거친 후 지원한 작품이 꽤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정식 공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원작 중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아 뮤지컬 시장에 새로운 관객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이제 초기 개발 단계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세심하게 다듬고 수정 보완하여 준비한다면 여느 작품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창작산실을 통해 제작된 뮤지컬 작품들이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및 중국, 대만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여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창작산실을 통해 다양하고 좋은 뮤지컬들이 많은 관객을 만나 사랑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 회의일시
 - (1차)2022년 11월 25일(금) 10:00~18:00
 - (2차)2022년 12월 14일(수) 10: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보라, 박귀섭, 박선욱, 이지현, 주재은, 하준국, 황두진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갖춘 본 사업은 예술적 수월성과 동시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무용창작품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확인된바 안무 창작 역량을 꾸준히 쌓아 온 지원 단체들의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와 열정을 심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는 총 47건의 신청 사업 중 필수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행정결격사업 2건을 제외한 총 45건의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전수검토와 1차 서류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서류심의에서는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실행 역량 검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작 45건중 16건의 작품을 선정하여 2차 인터뷰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10작품을 선정했습니다.

2차 PT 및 인터뷰 심의는 3차 실연 심의에 맞추어 구체적 형상화 계획이나 창작 과정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지원신청서의 내용과 더불어 수월성에 대한 확인과 예측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몇 년 간 스스로 단계적 창작을 통한 준비와 고민이 충실한 작품, 구체적인 시놉시스가 신청서에 드러난 작품, 창작 스텝들과 투명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와 협력이 꾸준히 준비되어 온 작품이 높은 가중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회적인 지원금의 소모가 아니라 본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규모에 맞도록 안무 역량을 집중하고,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마스터 플랜을 갖고 최종 공연까지 단계별 계획을 세운 단체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된 것은, 격려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속성 있는 장기 플랜과 거시적인 시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이 창작 실험의 초점 없이 자기 반복적이거나 자기 표절의 위험 수위에 있는 작업도 발견되었는데, 안무가 자신의 전작과의 변별력을 제시하고, 신작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이론이나 소설 등의 원작에 근거를 두고 창작을 이끌어 내는 시도들이었는데, 매우 장려할만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론 및 원작이 어떻게 춤예술 작

품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참고작이 매력적임에도 창작을 위해 좀 더 숙성되고 실험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극장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선택을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작품의 성격에 극장이 적절한지, 극장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관객의 배치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인 지와 더불어 작품과 극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떻게 적절하게 매칭되어 있는지가 선정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몸에 대한 미래적인 질문들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으며 매우 새로운 상상력과 방식으로 구현하려는 작업들이 동시대적인 이슈와 관련되어 실험적 측면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원신청하는 것이, 공연 윤리 및 예술 행정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례비 편성 가이드 라인과 주요 창작진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등 사업이 의도하고 규정하는 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무용인들의 참여에 대한 관행적 동의 방식, 적정선을 밀도는 사례비 책정 등에서 몇 가지 보완 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으며 무용창작문화를 스스로 지키고 성숙시켜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국내의 어려운 창작환경에도 지치지 않는 예술적 열정으로 무용 창작계를 지켜가는 무용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선정되지 못한 많은 작품들이 기대감을 주지 못해서 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조금씩 코로나 상황의 현실적 완화를 반기고 창작의 기지개를 켜는 무용인들을 마주하며 심의 위원 일동 역시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부디 이 불안정한시기를 창작의 열정으로 넘어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음악분야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1월 23일(수) 14:00~18:00
 - (2차) 2022년 12월 9일(금) 10:00~16: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수혜, 김재훈, 윤보미, 이가영, 이신우, 정인숙, 홍승기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단계별 과정 지원 사업으로 우수한 신작 발굴 및 예술적 수월성, 동시대성,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은 1, 2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의 실연심의(쇼케이스)를 지원하며, 나아가 3차 실연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한해 그 다음 해의 본공연의 제작비 등 직접경비 지원이 진행됩니다.

이번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음악분야 공모에는 총 17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7인의 음악분야의 전담심의회원들은 심의대상사업 전수 사전검토를 진행 후 1차 대면 심의회의를 통해, 1차 서류심의에서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등 행정결격 사유가 있는 3건의 지원신청서를 제외하고, 총 14건의 지원신청인(단체) 중 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서류심의를 통과 대상자에 한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총 7건의 올해의신작(후보) 음악분야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심의기준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3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로 나누어 심의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긴 팬데믹의 시간으로 위축된 예술가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어느 때보다 진중한 마음으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인(단체) 대부분이 탁월한 예술성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비한 면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적 경계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기획력은 작품의 콘텐츠화, 브랜드화를 통해 지속성과 확산성을 분명한 목표로 하는 예술적 도전과 시도로 보였으며 나아가 예술 활동을 모색하려는 진지함 그리고 분명한 자기 철학과 활동을 지원신청서에 구체적이고 성실히 작성하려는 부분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예술관, 예술가 본인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고민과 분명한 목적은 각 작품의 작품성과 예술성 및 차별성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여 심의위원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으며 특히 예술가 본인들을 잘 드러내기 위한 인상적인 인터뷰 준비도 지원결정대상 선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지원신청서가

연주자 구성 및 장르의 확장성을 통해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노력을 엿볼 수 있어 심의위원 모두가 기대하며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원신청인(단체)의 경우는 우수한 작품성과 기획력에도 불구하고 '올해의신작'이라는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지원신청서류로 본 사업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또한 사업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거나 진부한 프로그램의 반복을 보이며 추상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으로 세심하게 준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리와 무대, 다양한 음악적 융합 및 창작을 시도하는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실연심 의와 본공연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원신청인(단체)에게는 이번 지원을 통해 더욱 참신한 새로운 기획을 담은 창작활동을 펼치기를 응원하며 선정되지 못한 지원신청인(단체)들에게도 아쉬움과 격려를 전합니다. 힘든 팬데믹 시기를 버텨내며 더욱 창의적인 예술적 활동들을 모색하는 모든 지원신청인(단체)을 응원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더욱 빛나는 예술적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오페라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오페라분야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1월 28일(월) 10:00~13:00
 - (2차) 2022년 12월 16일(금) 14:00~17: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태암, 김민정, 김유노, 김재희, 박인선, 손성래, 이승규

올해의신작 사업은 기획, 쇼케이스, 본공연에 이르는 단계별 과정을 세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오페라의 경우 2023년 올해의신작(후보) 선정작과 더불어 2022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 선정작 다섯 작품이 함께 실연심의(쇼케이스)에서 경합하여 최종 본공연을 선정하게 됩니다.

5편의 지원신청작품 중 1편은 행정결격 사유(타 사업에 지원신청)로 제외되었고, 총 4편에 대하여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3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창작의도와 작품구성안, 실연심의(쇼케이스)와 본공연에 대한 제작계획과 세부 예산, 창작자와 출연자 및 스태프 구성, 대본과 악보 및 음원, 기타 주요 창작진 사업 참여 동의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올해의신작 사업 특성상 완결된 공연물이 아닌 그 가능성과 수행성을 놓고 평가해야 하므로 신중하고 다면적으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본, 가사와 악보의 유기적 결합성 2) 오케스트레이션과 보컬스코어가 작품이 구현하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예술적 독창성 또는 차별성 4) 작품의 시의성 5) 관객개발과 지속가능성 6) 작가, 작곡가, 연출, 지휘, 성악가와 합창단, 메인 디자이너 등 주요 아티스트 구성의 적절성 7) 예산 집행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구현가능성.

심의과정에서 대본과 악보의 결합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악보에 전체 가사가 누락되어 있거나 대본과 악보에 명시된 인물이 상이한 경우는 기초 작업 미비로 여겨졌습니다. 총보 없이 보컬스코어만 제출한 경우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을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여 예술성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원신청서에 제시되었던 새로운 음악 형식이 악보와 음원에 구체화되지 않거나 레치타티보와 새로운 형식의 대사 방식에 대한 계획 미흡, 전문 작가 부재로 인한 단선적인 대사과 가사는 개발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장르로 구분하면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시대물, 어린이 및 가족 관객의 오페라 입문에 적합한 아동문학 각색물, 환경문제와 관객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사회물, 관객참여물로 다양한 소재 발굴과 관객 확장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지원신청작품에서 작품의 독창성 또는 차별성 중 하나로 미디어아트 결합을 제시하였는데 세부 내용과 계획은

다분히 일반적으로 여겨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 지원신청작품 중 2편을 2차 심의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2차 심의는 단체별 프레젠테이션(10분)과 질의응답(10분)을 거쳤으며 제출된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해 창작진의 추가 설명과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과정에 있는 창작 초연의 출발점임을 감안할 때 두 작품 모두 가능성과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 새로운 오페라 양식 시도와 적극적인 관객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쇼케이스까지 보완,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지구 온난화 오페라 '1.5도C' >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1편의 올해의신작(후보) 선정작과 5편의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 선정작, 총 6편이 실연심의를 통해 쇼케이스 개발단계를 거치게 되며, 잔여예산은 본공연 예산에 통합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 지원신청단체의 다양한 시도를 담은 작품들을 검토하며 새로운 가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형식과 내용에 대한 모색과 시도를 통해 동시대성을 갖는 창작오페라 작품의 첫 걸음을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1월 21일(월) 10:00~13:00
 - (2차) 2022년 12월 11일(일) 14:00~20: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병오, 김선옥, 김성진, 김종욱, 김주홍, 송현민, 한지영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단계별 과정 지원을 통해 예술적 수월성, 동시대성, 독창성 및 다양성을 갖춘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회는 연출, 작곡, 기악, 소리, 연희, 평론, 기획 및 제작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18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서류미비로 인한 행정결격 1건을 제외한 총 17건의 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전원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3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의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사업에 대해 온라인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PT/인터뷰 심의는 1차 서류심의에 합격한 11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7건의 사업 (1억4천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 세부방향은 오래된 소재와 악기를 토대로 하는 전통예술만의 장르적 특성과, 한편으로 창작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흡수하고 발현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작들이 품고 있는 창작 경향을 살펴보고 굵은 원리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시대적 감수성과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작품을 탐색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이 심의 동안 작용했는데, 이는 공연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현실성), 예산과 작품 규모·성격 비교, 전통의 계승의지와 창작력의 균형 등이었습니다.

전통예술에는 다양한 하위 장르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여러 장르의 자양분을 흡수해체·재구축하려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창극, 창작 판소리, 정악, 굿, 현대음악, 타악, 연희 등이었는데, 일단 이러한 장르에 대한 연구와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창작’ 앞에 놓인 전통예술은 기존의 여러 소재를 토대로 하여 창작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창작의 ‘균형 잡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은 창작보다 계승의 비중이 더 강했고, 어느 작품은 전통에 대한 인식과 연구 없이 창작으로만 일방통행하려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는 작품의 실체가 목전에서 펼쳐지는 실연 심의와 달리 심의위원

이나 지원자가 지원서에 담긴 청사진을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작품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더듬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원자들의 상상력이 실현 가능성보다 앞지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의 상상력과 기획력도 중요하게 살펴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과 기간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어로 설계된 기획안은 우수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획을 운영해본 경험이 부재하거나, 기획안을 통해 표출된 의지가 실현력보다 앞서간 지원작은 배제하였습니다.

여타의 지원사업보다 올해의신작은 지원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하거나 협업하는 대규모 작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명성 있는 예술가와의 협업을 시도하는 지원작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획안에 명시된 지원자가 자신의 작품에서 충분한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업하려는 유명 예술가에게 작품 제작의 기회만 제공하는 소극적이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지원작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예산을 기획한 지원작은 규모, 진행과정, 적합성을 따져 평가에 반영하거나, 인터뷰 심의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며 진행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 시국에 그룹을 결성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동해온 지원자들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그룹들이었는데, 비대면 콘텐츠의 공간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기회에 규모가 큰 대면 공연을 제작하고자 지원한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대면과 대면 콘텐츠의 감각은 제작 과정은 물론 구상 단계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비대면 콘텐츠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실연과 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본 사업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거나, 대면 무대로의 제작 역량이 부족한 그룹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예술은 여러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작들이 보유한 우수함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지원작들이 차용하고 표방하려는 소장르에 대한 다양성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최근 창작 경향이 민속음악 같은 특정 장르로 집중국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거나 돌보지 못하는 장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주소를 파악하며 이번 심의에서는 정악, 민속음악, 현대음악, 연희 등 장르적 다양성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의 기운이 각 장르에 기운을 북돋워 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취지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심의를 통해 체험한 경험과 시도의 기회를 본인들의 향후 다른 기회에 잘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심의위원 일동